

## 중기부, K-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에 속도 올린다

- 인도시장에 진출 중인 창업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순방 성과 확산을 위한 한-인도 협력 전략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15일(금) 서울 용산구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인도에 진출 중인 국내 창업기업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도 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인도 국민 방문 계기로 중기부가 추진한 한-인도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행사의 후속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도 현지 일정에 동행한 창업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한 시장 분위기와 정책 건의 등을 공유했다.

\* 맥킨리라이스, 고피자, (주)덴탈브릿지, 어피닛, (주)디비스쿨, (주)라위드

중기부는 4월 20일(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 회담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관계 구축에 뜻을 모으고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인재 교류를 위한 「한-인도 벤처·창업기업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양국 인재들 간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박람회에서는 양국 벤처·창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취·창업 지원 정책 설명회와 인도 진출 창업 기업 쇼케이스(첫 공개 행사)도 운영해 현지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중기부는 4월 21일(화), ‘글로벌 K-파운더 네트워크’의 시작으로 「글로벌 K-파운더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개최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인 창업가들과 투자자들 간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

중기부는 인도 국민 방문 계기로 마련한 창업기업 분야 한-인도 양국 협력 기반을 토대로 우리 창업기업들의 인도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인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인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전략 시장”이라며, “우리 창업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의 풍부한 인재·시장 잠재력이 결합된다면 큰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도 방문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인도에 특화된 해외 진출 지원 정책 필요성 ▲한-인도 공동 벤처투자 필요성 ▲국외 창업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국민 방문을 계기로 구축한 인도와의 협업 기반을 토대로 향후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의 주요 혁신 거점들을 직접 방문하여 한-인도 창업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며, “인도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의 벤처·창업기업 생태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양방향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팀	책임자	과 장	박승호 (044-204-7680)
		담당자	사무관	윤지은 (044-204-7642)
			사무관	손임배 (044-204-7682)